



#장애 #나눔 #행복 #함께



장애와 함께하는 일자리 이야기 · 첫번째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

▼ 한혜지 6병동 간호사

- 안녕하세요. 저는 6병동 간호사 한혜지입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10번째 생일을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지체장애 중증, 뇌병변 경증으로 복합중증장애를 가진 간호사입니다. 비록 2021년 3월에 입사하여 근무한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장애인 직원으로서 느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대해서 따뜻함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 병원에 지원할 때 저는 갓 퇴원해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외래 간호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면접 때 팀장님께서 원장님과 병동 수선생님께 상의한 결과 저만 좋다면 병동 간호사로 일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상근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장애인 우대병원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런 배려와 제안을 통하여 나눔과 행복병원의 진면모를 몸소 느꼈습니다. 이 병원은 말로만 장애인 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병원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출근 셋째 날,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팀장님께서 수선생님 등과 협의하여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겨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원 대부분이 각자의 팀원들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의 체력소모가 다름을 이해하고 있고, 이해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적응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원들도 제가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을 구별하여 약 검수 등 약과 관련된 업무를 할당해주었고, 6병동 Medication Nurse로 임명해주심으로서, 병동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일을 할수록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이 경계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임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재활코치팀과 총무기획팀 선생님 한 분과 저를 포함하여 총 5명의 모임을 주선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병동에서도 보다 빨리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임 이름을 '너나들이'라고 명하고 장애인으로서 병원 생활에 힘든 점은 없는지, 병동 환경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시간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으로 인하여 병원에서의 적응해 나가는 방법, 또 몸에 무리가 없는 방법 등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병원 이념처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참여자들이 '나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받았고 장애인 직원이 병원에 입사했을 때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받은 애정과 보듬어주시는 따뜻함을 기반으로 심신이 불편하신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소통하고 위안이 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장애와 함께하는  
일자리 이야기

02





장애와 함께하는 일자리 이야기 · 두번째

##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 권진태 총무기획팀

### 시련의 가치

-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권진태입니다.

사고, 그리고 한 가정의 무너져 버린 가장의 모습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은 2019년 1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현실이 두렵고 혼란스러워 혼자 있는 시간은 나에게 시련이었습니다. 나의 시련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 재활병원을 찾던 중 알게 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본격적인 재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련의 깊이가 깊고 무거워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 주치의 선생님과 치료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토닥이면서 건네주시는 위로의 말 '힘드시죠'는 다시 재활치료센터로 가게 하는 윤활제가 되었습니다.

### 포기가 빠르면 시간을 번다.

'자신의 장애를 수용해야 한다'라는 말을 쉽게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장애의 수용이 복합적이다 보니 쉽지 않은 않았습니다. 가장이라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녀의 교육 등 한 두개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활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살아갈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재활코치라는 멘토가, 나의 장애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늘 상기시켜 준 나의 마니또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곁에서 '무엇을 어떡하지'할 때, 조언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주셨죠. 막막하고 두렵기도 한 저는 현실 앞에서 무엇이랴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고 병원에 있는 시간이 가까워서 시작한 공부는 저의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 현실과의 타협

퇴원 이후의 삶, 수없이 듣고 또 들은 말이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는 녹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아는 길을 가고 싶어서 병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저에게 스스로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고 사라지지 않게 “나 여기 있어요.”라고 외치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얻을 것은 얻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싶어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 꿈이 되어버린 직장 그리고 되찾은 현실



그래서 입원 중 전환점을 만들고자 미래 준비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습들이 많이 있기에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틈틈히 공부를 병행하면서 새로이 맞이할 현실을 대비해 왔습니다. 재활코치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일했다면 좋겠다.’하면서 선생님들을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퇴원도 하고 외래도 다니고 공부의 마무리도 하면서 나름 바쁘게 생활 했지만,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무언가를 새로운 시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장생활이 지치고 힘들 법도 한데 장애를 가지게 되니 오히려 일을 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간절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으면서 새롭지만 되찾게 된 현실에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

원장님께서 함께 일을 해보겠느냐는 말씀에 망설임없이 감사하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돌멩이도 다듬고 닦아야 보석이 되듯, 저를 보석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텅 빈 회의실 한편에서 책을 보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따뜻한 말로 용기를 주신 덕분에 그 용기를 먹고 저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위로와 칭찬은 아이들만 성장시키는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했으니까요. 손을 맞잡고 함께 가자는 원장님 말씀이 좋았고, 2년 동안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여 선순환을 시키려고 하는지 잘 알기에 함께 만들어 보려 합니다.

병원에서는 ‘사람을 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강조하면서 누구나 꿈을 꾸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준비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이 10년을 한결같은 생각으로 걸어온 것처럼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꿈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알려고 하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한 명의 좋은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만큼의 가치가 있다.

— 조지 허버트 팔머 George Herbert Palmer

육아휴직 후, 後



복직<sup>復職</sup> 이야기  기<sup>語</sup>



“

출근하기 전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는 매일 어디를 가냐고...

그럼 저는 엄마는 출근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



1.

## 같이 걸어갈수 있는,

▼ 신지영 재활1팀 뇌질환파트장



- 2015년 첫째아이를 낳고 2016년 복귀를 하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양육을 함께 해주시는 친정어머니가 계셨고 저보다 먼저 결혼한 여동생도 복귀하여 일을 했으니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초반, 둘째 임신을 알았고 물리치료사 중 처음으로 둘째 아이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혼인 여자선생님들이 많이 없었을 때라 이미 아이가 한명 있는데 나만 두번째 아이가 생긴다니 과연 제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까지 아이는 건강하게 컸고 주위 다른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해 11월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고, 두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0개월이 지나 2018년 12월, 복귀를 보름정도 앞둔 시점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생후 5개월부터 중이염을 자주 앓았던 둘째 아이는 대학병원까지 가서 수시로 진료를 봐야했고 집에서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 동네 의원이라도 빨리 가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며 돌이 될 무렵 대학병원에서 중이염 튜브시술을 권하셨고 12월 복귀를 해야 했던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술을 앞두고 자주 병원으로 가서 검사도 해야 하고 의원도 자주 들려야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2개월이라는 휴직 기간이 남았기에 휴직 기간을 다 사용할 것인가, 예정대로 12월에 복귀가 가능할까 많은 고민 끝에 배준호 팀장님을 찾아보았습니다.

고민했던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2월에 복귀를 하되, 2개월 동안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기로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당시에는 육아휴직 기간까지 육아기단축이 허용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단축근무를 했던

## 힘 力



선생님이 한 분 계셨지만, 파트장인 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팀장님께 너무 감사한 나머지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엄마로서, 또한 물리치료사로서도 다 잘 해낼 자신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무사히 중이염 시술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건강하게 자라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치료1팀에 워킹맘이 4명이나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있는 선생님도 3명이나 되고 임신 중에 있는 선생님도 2명입니다. 다 합치면 9명이니 이제 육아 동기가 꽤 늘어난 거죠. 코로나19가 조절되면 나중에 모여서 모임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출근하기 전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는 매일 어디를 가냐고... 그럼 저는 엄마는 출근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 다음에 아이가 커서 물리치료사로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사는 제 모습을 보면 실망하지는 않겠지하며 하루하루 지냅니다. 지금도 워킹맘으로서 한번씩 위기가 오곤 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의 양육이 힘든 시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힘을 주곤 합니다. 다른 기혼 여자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기에 오늘도 힘내서 병원으로 출근!하고 또 집으로 출근!합니다.

끝으로 이 같은 근무환경이 되게끔 도와주신 백선미 병원장님, 배준호 팀장님과, 많은 기혼여성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이아영 파트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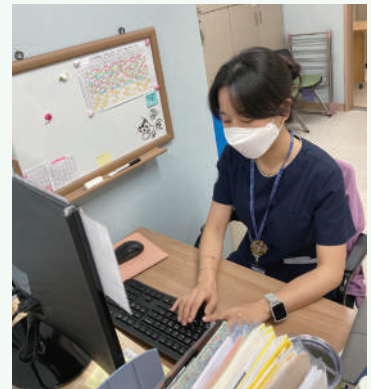


## 2.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이

육아에 더욱 몰두 沒頭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 이현지 5병동 간호사

• 어느덧 제가 나눔과행복병원과 함께한 세월이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면접을 보러 왔던 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병원의 느낌과 달리 깨끗하고 세련된 호텔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로 맞아 주시던 원장님은 어느 병원 면접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남자 친구 있냐? 결혼 할거냐?”는 질문도 하시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유방·갑상선 센터에서 원장님, 과장님들과 함께 외래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계를 해주시는 선생님도 임신을 하셔서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셨고, 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갑상선 수치 변화 관련해서도 컨디션 변화에 따라 바로 검사하고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어 더 안심되었고, 출산 준비기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30주가 넘어가고 출산 예정일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둔위에서 두위로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검진 갈때마다 여전히 계속 역아(逆兒)였습니다. 집에서 고양이 자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자세 변화를 한 건지 도통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영상의학과 손정민 과장님께서 초음파로 자세도 확인해 주시고, 태아 모습을 찍어주시는 호사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임신 36주 이후부터는 시간 단축근무도 하고, 출산 2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회사 사정상 조기 복귀를 한다든지, 휴직을 하더라도 휴직 사용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걱정하는 경우,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런 걱정 없이 출산,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5개월이라는 휴직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이 육아에 더욱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큰 힘이 되었고, 때로는 빨리 일하러 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나의 일', '나의 직장'이 있다는게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 일인지, 아기를 낳고 나서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저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출산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총 15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의 휴직이 끝나고, 막상 복직하는 순간이 되자 아기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루종일 있으면서 적응을 잘 할지, 긴 시간동안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지 첫째 아이라 모든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신 덕분에 현재 통합병동에서 근무 하게 되었고, 시간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아기를 케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도 많았지만, 우리 5병동 수선생님을 비롯한 같이 근무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무럭무럭 자라 벌써 씩씩한 네 살이 되었습니다.

'나의 일', 가정을 지킬수 있게 배려해주신 나눔과행복병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나눔과행복병원과 같이 성장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3. 복직 후 당황 했지만, 많은 분들의 배려로 업무에

#### ▼ 예나경 8병동 간호사

- 저는 2018년 2월에 입사하여 2019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에게 메여 있다보니 '육아보다 일하는게 더 쉽다'라고 했던 동료·선배들의 말이 그제서야 공감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로 이렇게 오랫동안 휴직한 적이 없어 복직에 대해 소극적이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변경 요청을 해야 했을 때, 5병동 수선생님과 멤버들, 병원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저의 복직 첫 날이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첫 날이었고, 그 동안 이렇게 아이와 오랫동안 떨어져진 적이 없기에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아이 생각 뿐이었습니다.

간호팀장님, 8병동 수선생님, 워킹맘 선배 선생님들 모두 '엄마 걱정과 달리 아기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을 거다. 엄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복직 후 이전과 달리 행동 반응이 느려지고, 병동 업무 및 병원 시스템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당황했지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도 잘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8병동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배려로 업무에 잘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부족함이 없는 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워킹맘 존경합니다. 화이팅!

잘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 이유정 6병동 책임간호사

“

꼭 병동이 아니어도,  
꼭 교대직이 아니어도,  
간호사로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곳

”

- 20대에 입사를 하고 나눔과행복병원에서 결혼과 출산 후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는 간호사로서 커리어를 잠시 멈춰야 하나 고민하던 중, 감사하게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원장님과 간호팀장님 그리고 우리 병동 식구들 항상 고맙습니다.

육아로 인해 더이상 이전처럼 교대직을 할 수 없어 퇴사를 고민하던 중 '괜찮아 우리 네가 필요해 어떤 포지션이든 너에게 맞춰줄게'라는 말은 저에게 한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꼭 병동이 아니어도, 꼭 교대직이 아니어도,  
간호사로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곳.

단순히 간호사로서 1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도 '나' 그대로인 사람을 원하는 곳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라는 말은 참여자 분들 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에게도 해당 되는 말입니다.

무수히 많은 '나'가 모여 있는 곳, 나눔과행복병원은 사랑과 배려 곧 행복입니다.



## 4. 믿음직한 복지제도를 갖춘 직장 덕에 가정도 커리어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 ▼ 정다미 QI 전담간호사

• 아침마다 내려간 기온을 실감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창 밖을 보니 하늘이 쾌청합니다. 지난 달부터 부쩍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뉴스가 실감이 납니다.

맑은 하늘을 즐길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네 가족이 각자의 자리로 출발하기 위해 바쁜 아침입니다. 부부의 출근과 두 아이의 등원을 동시에 준비하느라 우리는 방과 식당, 욕실을 부산스레 드나들고 서로 엇갈렸다가 마주쳐서 톱기도 합니다. 둘째까지 어린이집에 입소하며 제가 일터에 복직한 지 이제 막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이 정신없는 아침에 겨우 적응된 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장통 같은 우리 가족의 아침이 사실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직업인으로서 내 직장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당연하고 어떤 이에게는 힘겹게 느껴질 이 문장이 저에게는 때때로 가슴이 벅찰 만큼 행복한 일입니다. 예전부터 아이를 가진다면 두 명이 좋겠다고 꿈꿨고, 실제 첫째를 낳고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서로 의지할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나 출산·육아휴직을 거치며 직장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둘째를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직한 복지제도를 갖춘 직장에 소속된 덕에 제가 원하는 가정을 이루고, 커리어도 계속할 수 있는 현재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출근길은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습니다. 두 아이를 차례로 각자의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인도에 올라서서 눈에 익은 건물을 올라다봅니다. 푸른 하늘 아래, 건물 최상단에 붙은 우리 병원의 이름, '나눔과 행복병원' 일곱 글자를 한 번 되새긴 후에야 건물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저만의 출근의례입니다. 남들 다 하는 평범한 출근, 하지만 평범한 만큼 저에게는 더 큰 의미를 지니는 출근입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 5. 다시 마음 편히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지요.

### ▼ 백명길 6병동 간호사

• 제가 1년 3개월 동안의 휴직을 끝내고 근무지로 복직을 앞뒀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될 텐데... 늦지 않은 시간에 연차에 맞는 내 몫을 잘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근무지도 바뀌게 되어, 새로운 동료들과 잘 지내고 일도 잘 적응해야 할 텐데, 이것저것 걱정들이 앞서서 와중에 6병동으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신규 간호사로 돌아간 것처럼 모든게 다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우리 6병동 수선생님과 멤버들의 따뜻한 응원과 배려심으로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아이 문제로 근무표 조정이 불가피할 때도 수선생님과 멤버들이 먼저 제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해 주시고, 실수하는 제게 항상 친근한 격려의 말을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게 다른 어느 직장에서는 참 힘든일 일수도 있겠지만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그리고 간호팀 내에서의 든든한 조력과 응원으로 그 일이 제겐 정말 다른 세상일 같습니다.

다시 마음 편히 돌아올 직장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입원참여자와 지역사회 속의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가 성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01.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우리 병원은 지역사회로의 참여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재활의 방향성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 전문의와 치료진들의 전문지식을 담은 현장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재활과 장애에 대한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L·O·V·E

실습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으세요.

/

배준호 재활치료팀장님 특강 中

2017. 05. 24. —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 특강(김태형 재활의학과 부장, 김재원 팀장)

2017. 08. 30. —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병원 특강 및 견학(배준호 치료부장)

2018. 06. 25. — 11개 대학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하계 실습(45명)

2019 하반기. — 클래스셀링 수업신설 I 장애인식개선영상 제작(휠체어러كب이 운동선수들의 이야기)

2020 상반기. — 클래스셀링 수업신설 II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동 영상자료 제작



## 02.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활동 및 연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입원중인 참여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끝나지 않는 질문에 그저 '건강한 삶을 살자'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날씨가 좋은 날 함께 따스한 햇볕을 쬐거나 여행을 가는 것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며 건강한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통해 실현하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L.O.V.E 서로 다른 글자들이 만나 하나의 좋은 뜻을 이루는 것처럼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2016. ~ 2017. — ● 동서대학교\_부산걷기연맹과 함께하는 부산 국제갯맷길걷기 대회  
(장애부문 부스운영 및 진행)
-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진행



2018. ~ 2019. — ●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와 연계한 휠체어러키 스포츠 활동  
입원참여자들에게 스포츠활동을 소개하여 퇴원 이후에도 꾸준한 여가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20. — ● 재활병원 입원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연구  
자립생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 척수장애인의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기구 개발 연구(휠체어트레드밀)



2021. — ●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휠체어전용 트레드밀 특허 출원  
(2021 01. 23.)



- ● 척수손상장애인 건강 체력가이드 및 만성질환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연구

### 갑상선미세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의 장기추적결과

갑상선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미국갑상선학회 국제학술지 [Thyroid] 게재

★★

국내 최다  
치료 사례 발표!

제1차 조세진 교수  
대한초음파의학회  
국제지술상 수상!

**Long-Term Follow-Up Results of Ultrasound-Guided Radiofrequency Ablation for Low-Risk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More Than 5-Year Follow-Up for 84 Tumors**

Dr. Jai Chai,† Sun M Baik,† Hyun-Ang Cha,† Kang-Dae Lee,† Jung-Min Park,† and Jung-Hwan Baik†

**Background:** Despite reports showing favorable short-term results for thermal ablation of thyroid cancer, there remains a need to evaluate long-term results because of its indolent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long-term efficacy and safety of ultrasound (US)-guided radiofrequency ablation (RFA) for low-risk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PTMC) over a follow-up period of more than five years. **Methods:** Twenty-eight patients under surveillance after US-guided RFA for primary low-risk PTMC (mean ± SD, 1.0 ± 0.2 cm) with a mean follow-up time of more than five year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Before RFA, all patients underwent US and completed ultrasonography to evaluate the PTMC, and the presence of nodal metastases. RFA was performed using thermal ablation catheters. Follow-up US was performed at 1 and 12 months after initial RFA, and then every 12 months. The status of ablated tumors was evaluated according to volume reduction, local tumor progression, newly developed cancers, lymph node (LN) or distant metastases, and thyroid dysfunction.

갑상선미세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의 장기추적결과  
5년이상 경과된 84명의 환자

해문대, 나노과학대학 갑상선센터에서 13년간 본원에서 저술한 사례를 바탕으로 객관적병변분포와 나노과학대학이 책임지자 및 공동저자로, 병양사태를 관찰 조차검진과수술이 논문작성의 제 1저자로, 84명이상한 객관적수술의 지도 권위 제1차 조세진 교수에게 밀려 제 2저자로 기록되고 갑상선미세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의 장기추적결과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였고, 갑상선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미국갑상선학회 국제학술지[Thyroid] 2020년에 게재되었습니다.

고주파열치료술 이후 5년이상 경과된 84명의 환자들을 6개월의 추적을 대상으로 평균 7개월마다 추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주파열치료술은 국소완전성, 림프관 또는 원격전이, 2차전 암 발생을 유발하는 사례 이후 5년 이상 추적 관찰할만한 수술을 하게되는 경우는 없어, 저위험 유무갑상선 미세암 환자 치료에 대한 초음파 유도 고주파열치료술이 장기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통해 그 사람에게 맞는 최선의 회복이 무엇인지 ”

진심으로 관심 기울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

### 갑상선암에 대한 고주파열제술 치료효과와 안정성

대한영상의학학회지 게재

★★★

국내 최다  
치료 사례 발표!

제1차 조세진 교수  
대한초음파의학회  
국제지술상 수상!

**US-Guided Radiofrequency Ablation for Low-Risk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Efficacy and Safety in a Large Population**

Hyun-Ang Cha, MD\*, So Do Cha, MD\*, Jung-Hwan Baik, MD, PhD†, Kang-Dae Lee, MD, PhD†, Chung-Min Son, MD†, Jung-Min Son, MD†, Sun M Baik, MD†

**Background:** Despite reports showing favorable short-term results for thermal ablation of thyroid cancer, there remains a need to evaluate long-term results because of its indolent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long-term efficacy and safety of ultrasound (US)-guided radiofrequency ablation (RFA) for low-risk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PTMC) over a follow-up period of more than five years. **Methods:** Twenty-eight patients under surveillance after US-guided RFA for primary low-risk PTMC (mean ± SD, 1.0 ± 0.2 cm) with a mean follow-up time of more than five year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Before RFA, all patients underwent US and completed ultrasonography to evaluate the PTMC, and the presence of nodal metastases. RFA was performed using thermal ablation catheters. Follow-up US was performed at 1 and 12 months after initial RFA, and then every 12 months. The status of ablated tumors was evaluated according to volume reduction, local tumor progression, newly developed cancers, lymph node (LN) or distant metastases, and thyroid dysfunction.

갑상선암에 대한 고주파열제술 치료효과와 안정성

해문대, 나노과학대학 갑상선센터에서 13년간 본원에서 저술한 사례를 바탕으로 객관적병변분포와 나노과학대학이 책임지자 및 공동저자로, 병양사태를 관찰 조차검진과수술이 논문작성의 제 1저자로, 84명이상한 객관적수술의 지도 권위 제1차 조세진 교수에게 밀려 제 2저자로 기록되고 갑상선미세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의 장기추적결과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9년 대한영상의학학회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갑상선암에 대해 고주파열제술을 받은 133명의 환자에서 5년이상 경과된 84명 환자들을 추적관찰하였습니다. 6개월의 추적 관찰을 대상으로 평균 7개월마다 추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저위험 갑상선미세유두암에 대한 열절제술의 5년 추적 결과

체계적인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유럽영상의학학회 학술지 게재

논문지

**Five-year follow-up results of thermal ablation for low-risk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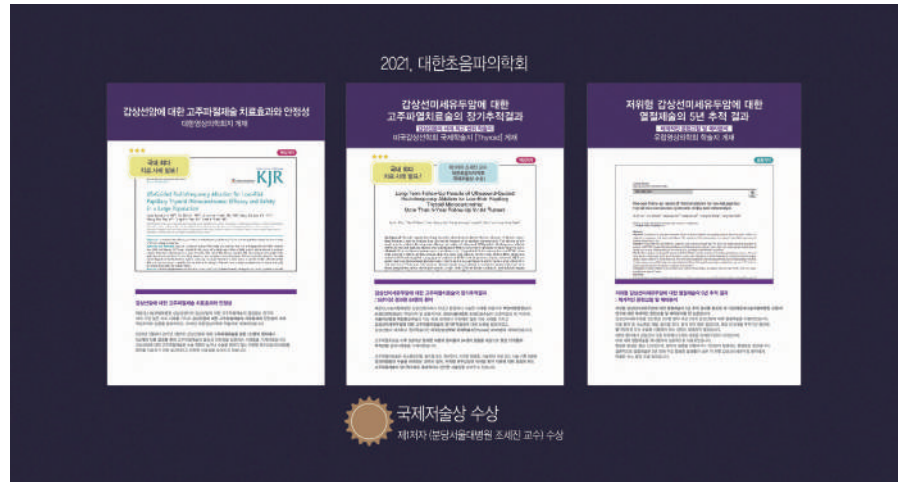
So Do Cha,† Sun M Baik,†, Chung-Min Son,†, Kang-Dae Lee,†, Jung-Hwan Baik,†, and Jung-Hwan Baik†

Background: Despite reports showing favorable short-term results for thermal ablation of thyroid cancer, there remains a need to evaluate long-term results because of its indolent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long-term efficacy and safety of ultrasound (US)-guided radiofrequency ablation (RFA) for low-risk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PTMC) over a follow-up period of more than five years. **Methods:** Twenty-eight patients under surveillance after US-guided RFA for primary low-risk PTMC (mean ± SD, 1.0 ± 0.2 cm) with a mean follow-up time of more than five year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Before RFA, all patients underwent US and completed ultrasonography to evaluate the PTMC, and the presence of nodal metastases. RFA was performed using thermal ablation catheters. Follow-up US was performed at 1 and 12 months after initial RFA, and then every 12 months. The status of ablated tumors was evaluated according to volume reduction, local tumor progression, newly developed cancers, lymph node (LN) or distant metastases, and thyroid dysfunction.

저위험 갑상선미세유두암에 대한 열절제술의 5년 추적 결과 : 체계적인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저위험 갑상선미세유두암에 대한 열절제술의 5년 추적 결과를 발표한 세 기관(해문대, 나노과학대학 포함)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갑상선미세유두암을 진단받은 207명 환자 대상 5년간 갑상선암에 대해 열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 국소종양 재발, 림프관 전이, 원격 전이 등은 없었으며, 평균 67.6개월 추적기간 동안에 불기피하게 다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환자에서 갑상선의 다른 부위에서 5개의 새로운 미세유두암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열절제술을 제시받았어 성공적으로 치료되었습니다. 합병증 발생은 평균 1.2%였으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이 발생한 합병증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열절제술은 5년 안에 주요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저 위험 갑상선미세유두암 환자에게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지난 13년간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한 갑상선유두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백선미 병원장과 손정민 센터장은 본원에서 13년간 시술한 사례를 정리하여 책임저자와 공동저자로, 분당 서울대병원 조세진 교수(임현경 교수)는 논문작성의 제1저자로, 서울아산병원의 백정환 교수의 지도하에 2편의 논문이 게재, 공동저자로 세 번째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논문의 제1저자인 조세진 교수님께서, 2021년 5월 13일 제52회 대한초음파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국제저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1년간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초음파 관련 논문 중에서 우수한 연구논문을 채택하여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제1저자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세 편의 논문발표를 통해 '갑상선미세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이 근거중심의 치료로서 인정받게 되는, 치료가 가지는 소중한 의미에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해주신 백정환 교수님, 조세진 교수님, 그리고 임현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01. 최고 권위 학술지 게재

한 편은 영상의학과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대한영상의학회 국제학술지’에, 다른 한 편은 갑상선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Thyroid[갑상선]’에 게재 되었습니다.

### 02. 국내 최다 치료사례

발표 당시, 첫 번째 논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치료 사례였고, 두 번째 논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치료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한 발표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03. 근거기반 확보

갑상선 암에 대한 수술 중심의 1차 치료에서, 고주파열치료술(수술과 동일한 치료효과 및 시술 전과 동일한 삶의 질 보장)을 1차 치료로 향후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술을 시작한지 약 10여년의 정도의 기간 동안, 시술을 상의하고자 찾아오신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더 분명해지는 생각은,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질환만을 보는 것이 아닌, 질환을 가진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질환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있다면, 그래서 환자분의 각자의 종합적인 건강상태와 개인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다양하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각자가 원하는, 보다 나은 질 높은 회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고주파와 에탄올 치료가 상당부분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갑상선센터는 각자가 원하는 질 높은 회복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과 그 사람에 맞는 최선의 시술을 통해, 적어도 시술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이 아닌 시술로 치료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사명을 향해 갑상선센터 가족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 갑상선센터 논문

- 2021 저위험 갑상선미세유두암에 대한 열절제술의 5년 추적결과 : 체계적인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유럽영상의학회 국제학술지 | 공동저자
- 2020 갑상선미세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의 장기추적결과 : 5년이상 경과된 84명의 환자  
미국갑상선학회 국제학술지 [Thyroid] | 책임저자
- 2020 양성부갑상선결절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  
대한영상의학회 국제학술지 [KJR] | 공동저자
- 2019 갑상선미세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치료효과와 안전성  
대한영상의학회 국제학술지 [KJR] | 책임저자
- 2017 새열낭종에 대한 에탄올 치료효과와 안전성  
미국신경영상의학회지 [AJNR] | 책임저자
- 2017 갑상선관낭종에 대한 에탄올절제술 치료효과와 안전성  
유럽영상의학회지 ESR | 공동저자
- 2012 양성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합병증  
Radiology [RSNA] | 공동저자

## 갑상선센터 진료권고안

- 2021 양성갑상선결절과 갑상선재발암의 고주파절제 진료권고안  
대한초음파학회지 · 대한영상의학회지 | 공동저자
- 2019 갑상선 에탄올절제술 진료권고안  
대한영상의학회 국제학술지 [KJR] | 공동저자
- 2017 갑상선결절의 중심부바늘생검 진료권고안 제정  
대한초음파학회지 · 대한영상의학회지 | 공동저자

## 갑상선센터 대외활동

- 21.06.15 대한ITA영상의학회 학술집담회 특강  
갑상선유두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술
- 21.04.17 제 11차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강의  
갑상선결절에 대한 비수술적치료사례
- 20.12.13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연수강좌 강의  
갑상선 및 경부결절에 대한 에탄올치료에 대한 원리와 치료방법
- 20.11.28 부산경남지회 대한영상의학회 전문의 연수교육 강의  
갑상선 결절의 진단과 갑상선 및 경부결절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
- 19.09.07 제12회 대한 ITA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 좌장
- 19.08.30 2019 대한갑상선학회 춘계학술대회 좌장
- 19.06.24 제5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심화 Hands-on 교육 강의  
에탄올치료 기법

- 19.06.22 KSSR 제7차 대한영상의학회 춘계심포지엄 패널토의  
갑상선 결절 질환의 증재적 치료 및 외래진료 증례 session
- 19.04.20 2019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제 10차 학술대회 강의  
Potential clinical application of RFA
- 18.09.02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제1회 지역 심화 Hands-on 교육 강의(부산,경남)  
US anatomy
- 18.07.15 제4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심화 Hands-on 교육 강의  
갑상선 기능이상과 약물치료
- 18.06.24 KSSR 제6차 대한영상의학회 춘계심포지엄 강의  
Unforgettable cases and lessons I've performed RF ablation
- 18.04.20 동아대학교 갑상선센터 초청 강의  
갑상선,경부결절에 대한 증재적 치료사례
- 17.12.10 2017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연수강좌 강의  
US Interpretation based on K-TIRADS
- 17.11.15 2017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 강의  
Ethanol injection for thyroid nodule : Principle and technique
- 17.07.16 제3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심화 Hands-on 교육 강의  
갑상선 기능저하와 약물치료
- 17.06.24 제5차 대한영상의학회 춘계종합심포지엄 강의  
갑상선 결절 질환의 증재적 치료 및 외래진료 증례
- 17.06.17 제14회 갑상선 연수회 강의  
갑상선과 부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 및 에탄올절제술
- 17.04.22 2017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제8차 학술대회 좌장
- 16.11.20 부산백병원 외과연수강좌 초청강의  
갑상선결절에 대한 진단 및 추적검사
- 16.04.23 제7차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강의  
갑상선암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 14.06.28 제2차 대한영상의학회 춘계종합심포지움  
갑상선영상의학회 외래진료 협력모델에 대하여 패널 토의
- 14.04.26 2014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제5차 학술대회 좌장
- 13.10.09 제69회 KCR 대한영상의학회 춘계학회 강의  
중소병원에서: why and how
- 13.06.29 제10회 갑상선 연수회 강의  
갑상선과 경부질환에 대한 조직검사
- 13.05.21 제16회 대한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춘계 학술대회 강의  
조직검사와 시술 : 환자를 설득하기와 실행하기
- 12.10.28 제15회 대한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춘계 연수교육 및 총회 강의  
갑상선 결절의 진료 스키
- 12.09.27 제6회 동아 Radiology Seminar 초청강의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 시술방법 및 증례
- 12.04.07 부산시 개원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강의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진단 및 개원가에서 갑상선결절에 대한 전략
- 11.12.11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연수강좌 강의  
갑상선 에탄올절제술의 효과
- 11.06.18 대한영상의학과 연세 갑상선초음파 심화과정 심포지움 강의  
석회화를 가진 갑상선결절의 모든 것
- 11.04.23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강의  
석회화된 갑상선결절의 초음파진단
- 11.02.1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초청강의
- 09.11.21 부산경남 유방 및 갑상선 영상 연구회 - 유방 및 갑상선 연수강좌 강의  
갑상선 결절의 초음파진단과 세침흡입생검술
- 09.09.05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심포지움 강의  
악성표지자로서의 갑상선 석회화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 성장  
행복충전소, 삶을 긍정적으로 만  
가족같은 존재, 함께하는 곳,  
일하면서 좋은 기운을 받는 병원,  
삶의 필연적인 동행, 살아 있음을  
나를 성장 시켜주는 곳, 새로운 희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터, 나눔을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삶터, 다시  
동행하는 이들이 있는 곳, 꿈을 품  
희망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곳,  
정체성을 찾게 해준 곳, 소속감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방향  
함께 행동하고 함께 행복한 곳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곳,  
드는 곳,

감성이 충만하게 만드는 곳,  
느낄 수 있게 하는 곳,

망,                   나에게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이란?

보고 배우는 곳,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곳,

펼칠 수 있는 곳,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

안정감을 주는 공간,

양을 제시한 곳,



# 나에게

## ▼ 배연정 간호팀/수간호사

입사한 지 어느덧 6년이 넘어갑니다. 모든 병원은 똑같은 거라는 편견을 깨어지게 한 병원이 나눔과행복병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와 마인드가 컸던 병원, 그리고 생각대로 커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간호사이기에 병원에 있어야 한다면 이 병원이 아닐까 합니다.

## ▼ 최철훈 재활팀/파트장

‘누구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가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서 있다 보니 10년이 되었습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이제는 제 인생 퍼즐을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큰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 ▼ 이아영 재무기획팀/파트장

처음에 나눔과행복병원을 다니면서 적응하는 시기동안 직장이라는 의미가 컸지만, 차츰 저의 일상에서 뺄 수 없는 공간이자 인생의 한 부분이 되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한 거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경험을 공유하면서 저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은인같은 존재입니다.

## ▼ 박선영 간호팀/팀장

세상을 보는 시야의 폭을 넓혀주고 삶의 변화를 준 계기를 만들어 준 직장. 사람의 소중함과 좋은 관계의 힘으로 마음 됨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곳.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는 기쁨을 가르쳐 준 일터.

## ▼ 박소윤 원무기획팀/팀원

일터로서는 소속감과 저의 위치에 있어 누구에나 자랑할 수 있는 병원.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이곳 저곳 다녀본 직장들보다 체계, 업무의 항상 도움에는 최고의 병원. 힘들어도 어려움이 닦쳐도 직원들 간에 소통으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는 병원이라 자부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 ▼ 정주영 사회사업팀/주무

병원의 미션처럼 어울려 살아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타 부서팀과 조화롭게 업무를 협업하여 진행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리더들 속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배우고 같이 성장해나감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 됨을 느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며 함께 발전하는데 도모하고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란?

깊은 마음과, 앞으로의 병원의 가치가 더 기대되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이하늘 사회사업팀/팀원

나에게 나눔과행복병원이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며 '좋은'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 ▼ 박희진 간호팀/수간호사

나에게... 나행이란 내 삶의 일부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사로서 나행을 만나서 10년이란 세월동안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정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하는 곳인 것 같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꿈의 병원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의 도전진행형입니다.

### ▼ 서인석 재활코치팀/주무

홍보팀으로 입사하여 사회사업팀, 사회사업팀 내 재활코치, 재활코치팀으로 근무하기까지 5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비장애인 직원이 훨씬 많은 곳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원장님과 팀 동료분들이 제가 병원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셔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곳이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입니다.

### ▼ 김남이 건강증진센터/팀원

지난 20년 간 가정주부로서 집안일에 충실하였던 저는 사람들에게 '석이엄마', 또는 '현이엄마'로 불려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두 아들의 엄마로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오로지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입사한 이후에 저는 '김남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 아들의 엄마가 아닌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부터라도 주체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며, 간호조무사로서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

길향현 X 배현경

## 특별한 만남

글 | 재활치료팀

**향현** 안녕하세요. 재활2팀 생활치료파트장 작업치료사 길향현입니다. 현경선 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경** 안녕하세요. 재활2팀 일상생활파트 2년차 작업치료사 배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향현** 현경선생님은 어떻게 우리 병원에 입사하게 됐나요?

**현경** 저는 학생때부터 학교에서 워낙 저희 병원이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실습지였고 무엇보다 밥이 맛있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물론 농담이고, 먼저 저희 병원에 다니고 있던 학교 선배가 일하는 치료방식이 여태껏 보았던 정형화된 작업치료가 아닌 모습에 여기대!하고 지원하게 됐어요.

**향현** 저는 벌써 12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 병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병원이었고, 2010년에는 힐링스란 이름의 병원이었어요. 당시 이 곳에는 제 후배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함께 일하자고 했었어요. 그 땐 '왜 그랬지?' 싶었는데 처음엔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제안이 오게 되어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다니고 있네요. 현경 선생님은 저희 병원 첫인상이 어땠나요?

**현경** 저는 처음에 병원에 들어왔을 때 벽에 붙어있는 그림들이랑 문구들이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중 '사람을 봅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입사하고

치료했던 참여자 분이 퇴원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그 문구를 읽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병원만 생각하면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 자리가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파트장님은 저희 병원에 11년 동안이나 근무하셨는데 오랫동안 근무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향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를 아가며 치료를 통해 참여자 분들이 다시 일상 속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저를 오래 일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오래 한 직장을 다니다보면 이직에 대한 생각도 들기 마련이지만 우리 병원은 재활치료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것을 보며 저도 함께 발전하고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2019년 백영수 팀장님, 당시엔 서울에서 온 유명한 강사셨는데, 지금은 우리 팀장님이 되신 그 분의 OTIPM교육을 들으면서 더 크게 와 닿았던 것 같네요. 더불어 병원의 재활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원장님의 작업치료의 발전을 위해 생각하시는 마음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열심히 자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또 저희 병원은 재활치료를 하는 치료사로서 의미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덕분에 만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하고 함께하게 되면서 우리 병원의 작업치료사가 특별하다는 자긍심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 01

**현경** 저도 저희 병원의 차별화 된 치료환경과 장점에 뿌듯함을 많이 느껴요. 발전하는 재활치료팀의 역사 속에 함께 한다는 생각이 저에게도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향현** 현경 선생님은 일상생활파트에 속해있는데 파트만의 장점이 있나요?

**현경** 제가 속한 일상생활파트는 '나 스스로 한다!'가 주된 목표가 되는 공간이에요.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 7가지 마을로 구성된 치료실에서 자립 활동을 통하여 얻은 쿠폰으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시스템이고 오로지 나를 위해 사용되는 곳이죠. 진정한 사회로의 복귀와 온전한 삶을 위해 특수하고 차별화된 환경과 시스템이 저희 병원과 파트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파트장님 파트는 어떤가요?

**향현** 제가 속한 생활치료파트는 참여자가 머무는 그 곳에서 생활이 치료가 되는 공간이에요. 다른 치료실과는 다르게 병동 내에 위치한 만큼 초기생활 모니터링에서부터 자립적 생활에 대한 인식개선교육과 상담, 자립을 습관화하는 생활관리 및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파트다 보니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시도하는 낯선 방향인 만큼 모두가 끈끈하게 뭉칠 수 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작은 장점은 개인적으로 제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참 좋습니다.

**향현** 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우리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재활치료팀  
길향현



재활치료팀  
배현경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병원의 모습을 보며 제 모습도 한번 바라보게 되고요. 현경 선생님에게는 우리 병원이 어떤 의미인가요?

**현경** 저에게 우리 병원은 안식처라고 생각해요. 입사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렇듯 크고 작게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 때 병원에서 만난 소중한 선생님들과 인연들이 해주신 말씀과 위로들이 많은 버팀목이 되었고 이제는 제 삶의 소중한 일부분이 되었어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향현** 맞아요. 저도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한테 힘도 많이 얻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경 선생님은 저희 병원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현경** 바라는 점이라... 아직 2년차인 제가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에 혼내지 않고 부담없이 물어볼 수 있는 수평적인 소통문화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치료할 때 실수할까봐 떨었던 날 해주셨던 응원, 실수했을 때 해주셨던 조언들 덕분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자신감도 찾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과 수평적인 소통의 문화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향현** 맞아요. 초반에 받았던 응원과 조언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선생님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현경** 감사합니다~ 🙏

박연주 X 전미연

## 특별한 만남

글 | 간호팀

**연주** 안녕하세요. 8병동 책임간호사 박연주입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연** 안녕하세요. 8병동 2년차 간호사 전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주**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 병원에 입사하게 됐나요?

**미연** 저는 3차 병원 3교대가 힘들어 퇴사 후 쉬고 있다가 저희 병원에 다니는 친구의 소개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벌써 1년 3개월이 되었네요.

**연주** 저는 2011년 1월에 입사하여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벌써 11년이 다 되어가네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선생님은 우리 병원의 어떤 점이 좋나요?

**미연** 저는 병동 분위기가 가장 좋아요. 전에 다니던 병원은 굉장히 수직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여서 항상 긴장하고 실수도 자주 했는데, 이제는 출근도 즐겁고 저희 병원만의 밝고 명랑한 분위기 때문인지, 간호 업무에 능률도 오르고 실수도 줄었어요. 밤 근무를 안해도 돼서 좋고요. 그리고 저희 병동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세요.

**연주** 우리 병동 분위기는 최고예요. 태움 문화가 없는 수평적인 관계,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병원은 복지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임신으로 단축근무도 할 수 있고 1년 동안 육아휴직도 마음 편히 사용 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장기근속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포상휴가가 주어져요. 개인적으로는 월급도 많이 올랐구요. 코로나19로 인해 매달 마스크도 지급되며 직원들을 항상 생각하시는 병원장님의 가치관이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처럼 이 병원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함께 오래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라서 여행을 갈 순 없지만, 이전에는 15일 간의 휴가도 가능하여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교대근무로 인해 장기 연차가 힘들지만 우리 병원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병동에 미국 간호사 시험으로 15일간 휴가를 사용했고, 시험에 합격해서 왔답니다. 나이트킵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도 소방직 공무원에 지원하여 두 명이나 합격했구요. 우리 간호사들 참 대단하죠? 특히 우리 간호사들의 열정과 역량을 확인한건 작년에 간호 인증 평가할 때였어요.





간호팀  
박연주



간호팀  
전미연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을 다해 합격하게 되었어요. 체계적인 간호시  
스템도 마련하게 되었구요.

**미연** 저도 우리 병원에서 장기근속 하고 싶어요. 꼭 장기근속 상금 받을거예요.

**연주** 병원 생활하면서 힘든점은 없나요?

**미연** 수선생님, 책임선생님께서 수시로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제가 고충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는 수선생님과 면담하면서 고민을 해결하면 크게 힘든점은 없는  
것 같아요. 간호적인 문제보다는 재활병원 특성상 간병사 및 외부적인 문제들이  
닥쳤을 때 제가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때가 있어요.

**연주**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문제로 힘들었으나 수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해결방법을 찾아갔고 지속적인 경험으로 저 역시 성장 하는 것 같아요.

**연주**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나요? 저는 수선생님만의 부드러우  
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닮고 싶어 노력 중이에요^^

**미연** 저는 저희 병동 선생님들이 제 롤 모델이에요.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참여자 분들  
에게 인간적인 따뜻한 간호사...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처럼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모습의 간호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연주** 맞아요, 선생님은 충분한 역량을 가진 간호사예요. 제가 옆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미연** 감사합니다~ 🙏

정세경 X 김혜지

# 특별한 만남

글 | 통합외래팀



**세경** 안녕하세요. 유방·갑상선센터 부팀장 정세경입니다.

혜지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혜지** 안녕하세요. 유방·갑상선센터 1년차 김혜지입니다.

**세경** 혜지 선생님은 우리 병원에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나요?

**혜지** 저는 원래 수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관 기간동안, 예전부터 시간 날 때마다 틈틈히 다니던 간호학원의 실습을 마무리하려고 해 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격증 취득만이 목표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막상 실습을 나와 보니 선생님들도 좋으시고 병원 복지도 좋아서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때마침 유방·갑상선 센터에 총원이 결정되면서 운 좋게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경** 저는 우리 병원 근처에 집이 있어요. 육아를 하면서 오랜 시간 쉬고 있을 때 남편 검진차 우리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병원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예전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선생님을 만났고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 날 저녁에 바로 연락이 왔고 유갑센터에서 구인을 하는데 와서 면접을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병원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네요~ 혜지 선생님은 우리 병원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나요?

**혜지** '따뜻하다', 나눔과행복병원에서 느낀 첫인상입니다. 만나는 선생님마다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고, 병원을 찾으신 분들께도 그저 사무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면서 친근하게 다가가시더라고요. 사람에게 다정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세경** 우리 병원은 정말 따뜻한 병원이에요. 저도 처음 입사했을때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이 드는 생각은 직원에 대한 따뜻함, 고객에 대한 따뜻함이 늘 중심인 병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단어죠~



통합외래팀  
정세경



통합외래팀  
김혜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항상 생각하게 해주는 병원이죠~ 제가 입사한지도 벌써 6년째네요~ 10년의 경력 단절이 있었지만 이 기간동안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우리 유갑센터 팀장님, 선생님들과 언제나 편안한 분위기로 유갑센터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원장님과 과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혜지 선생님은 우리 부서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혜지** 직원 복지가 좋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리 병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 인력이 충분한 점이 우리 부서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신입 직원이 있으면 전담 마크를 통해 지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연차나 반차 사용도 자유롭고요.

**세경** 맞아요. 우리 부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참 예뻐요. 휴가 사용도 최대한 선생님들의 개인사정을 존중해 주시니까요~ 가족적이고 밝은 분위기도 우리 유갑센터만의 장점이지요~ 우리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이 혜지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혜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나도 역시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할 수 있는 곳. 삶의 좋은 방향성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세경** 맞아요. 우리 병원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의미를 두는 병원이죠~ 저에게 우리 병원은 항상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지... 다짐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혜지 선생님 혹시 프리셉터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혜지** 제가 느끼기에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세경** 감사합니다~ 🙏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 간호팀, 감사합니다!

항상 참여자와의 최접점에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간호팀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컴플레인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슬기롭게 해쳐 나가시는 모습에 늘 감동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하신 간호팀장님을 중심으로 각종 수선생님, 그리고 모든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아낌없는 수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어느 병원보다 미소롭고, 어느 간호팀보다 밝은 우리 병원 간호팀을 늘 응원합니다~

### 관리기획팀, 감사합니다!

시설이나 구매 부분은 잘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부족하면 바로 눈에 띄어 단점이 두드러 질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시설이나 구매 부분에서 불편함 없도록 고민해 주시는 모습과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주시며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평소 바쁘게 오셔서 해결 해주시고 가시는 관리기획팀의 뒷모습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했는데~

참여자 분과 가족의 병원 생활에 시설에 대한 불편감을 빠른 시간에 해결해 주시고 간호팀의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사회사업팀, 감사합니다!

참여자 분들이 입원 생활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사업팀에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면 늦은 시간까지 모든 준비와 마무리까지,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 한 분 한 분 정성스레 알려드리는 모습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참여자 분들이 입원에서 퇴원, 그리고 사회로 가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에 끊임없이 함께 동행해주는 모습에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건강검진팀,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신 분이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건강검진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안내하고, 설명하고 고객이 혹시나 불편할 부분은 없을까를 생각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우리 건강검진팀은 진정 우리 병원의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약속잡고, 모임하고 송구영신이라하며 들뜨고, 한 해를 정리하며 풀어지는 분위기지만, 우리 건강검진센터는 반대로 더욱 긴장하는 시간이 연말입니다. 건강검진을 미쳐하지 못한 분들이 뒤늦게 많이들 오시니 일은 더욱 더 많아지고,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서로 업무가 다르고 만날 시간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검진팀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병원 식구들은 다 알고 있으니 모쪼록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병원 '드림팀', 건강검진팀 감사합니다.

###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외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는 부서 중 가장 힘든 부서인데 언제나 밝은 미소와 상냥한 어투로 대해 주시는 최고의 내시경 센터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건강검진의 마지막이 내시경이다 보니 고객님의 많은 부분을 신경써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저희 팀과 조율하시면서 고객님의 위해 함께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검진 전 준비 사항(약복용, 금식 등)이나 당일 컨디션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신경써주시고 내시경 후에도 고객님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 매년 챙겨주시는 최고의 내시경 센터의 모든 직원들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심사기획팀, 감사합니다!

꼼꼼·찬찬한 심사기획팀에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매일 매일 병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과들의 수 많은 진료내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각 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 누락된 것들까지 매의 눈으로 찾아내어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살피고 챙겨주시는 심사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병원의 수익과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팀으로 올해 EMR변경으로 더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꼼꼼·찬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팀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영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늦게 일과를 마무리하는 영양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 식구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병원 밥 정말 맛있다'

우리 병원 식사를 보면 우리 영양팀이 얼마나 깐깐한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 하나, 어떤 반찬 하나 허투루 나오는 경우가 없고, 영양에 대한 깐깐함이 식판을 딱 들면 보입니다. 뿌려먹는 소스정도는 외부에서 구입해도 될 법한데 절대 그러질 않고 모든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만드는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통 직장이 다들 그러하듯 우리 병원에도 혼자 사는 직원이 있고, 아침에 바빠 식사를 거르고 오는 직원들이 많은데 언제나 그러하듯 집에서도 만들어 먹기 힘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내어주시는 우리 영양팀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 약제팀, 감사합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여자 분과 고객 분들을 위해 약을 조제해주시고,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급여제도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제팀에 자문을 구할때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대 해주시고, 올라가는 선생님들 모두 차분하고 침착한 일처리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방·갑상선센터, 감사합니다!

유방·갑상선센터는 유방·갑상선 초음파가 포함된 검진이 있는 경우 고객 분들께서 원활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게끔 예약 및 안내를 해주십니다.

타 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봐주시며 놓친 경우가 있더라도 고객 분들께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유방·갑상선센터는 항상 바쁘신 가운데 고객 분들께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는 모습에 대해 늘 감사드립니다.

또 전화를 들려주실 때도 잊지 않고 고객정보를 전달 해주시는 것도 항상 감사합니다.

### 영상의학팀, 감사합니다!

영상의학과를 찾아가는 모든 참여자나 고객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응대하시고, 빠르게 일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묵히 맡은바 일을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믿음이 갑니다.

### 원무기획팀, 감사합니다!

원무기획팀은 병원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객 접점 부서로서 어려운점, 힘든점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객만족에 힘 써주시는 원무기획팀에 감사드립니다.

### 재활치료1팀, 감사합니다!

재활1팀에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에 함께 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많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2팀이 정착해나가고 자리 잡아가는데 저희만의 노력이 아닌 1팀이 함께 해주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를 전합니다.

### 재활코치팀, 감사합니다!

재활코치팀의 의미는 본 원에서 함께하는 이유이고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미공동체이지요.

우리 병원에서 재활코치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에 감사하고, 국내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재활코치팀으로 자리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재무기획팀, 감사합니다!

MONEY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나름의 까칠함이 있을 듯한데, 바쁜 연말에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면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는 재무팀~ 감사합니다.

### 재활치료2팀, 감사합니다!

약 10여년 동안 재활치료팀을 이끌어가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2020년 9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재활치료2팀장으로 입사하면서 빠른 시일 내 작업치료의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 마련과 다양한 변화를 통해 작업치료사의 치료 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치료팀의 여러가지 시스템을 변화시켜 참여자분 뿐만 아니라 치료사들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전산기획팀, 감사합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켜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대부분 업무들이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마무리하는 컴퓨터를 끄면서 끝이 납니다.

일을 함에 있어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입니다. 원활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 작은 문제라도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이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퓨터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공기처럼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산기획팀!!! 고맙습니다.

### 진단검사의학팀, 감사합니다!

바늘에 찔린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아픈 순간을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고객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친하게 인사를 하기도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복잡하고 드문 검사 처방도 항상 잘 처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총무기획팀, 감사합니다!

총무팀은 병원의 뼈대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총무팀이 없다면 직접 고객을 대면하는 부서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거나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세하게 신경 써주시는 총무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 감염관리팀,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에 감염관리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 병원에 감염관리라는 길을 개척해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코호트와 인증을 거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래 없는 코로나 19라는 생소한 질병과의 전쟁에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라는 거대한 배를 지켜내기 위해, 곳곳하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 방역 지원 가디언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퇴근 할 때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원내 모든 출입 고객들의 체온 측정과 출입관리 대장을 꼼꼼히 관리하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참여자 분들의 택배물품, 배달, 외출 관리 등에 바쁘면서도 늘 밝게 인사하는 태도를 칭찬합니다.

### 진료부,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최고의 의료를 행하시는 진료부 선생님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최전방에서 참여자님들을 돌보시는 진료부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 홍보기획팀,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은 지난 10년간 혁명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혁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 이 땅에 올바른 병원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나눔혁명가들입니다. 나눔혁명가들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담은 깃발을 높이 세우고 많은 이들을 흔들며 깨우는 이들이 바로 우리병원의 홍보기획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기획팀은 특유의 감성 터치로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를 직접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보이고 있는 팀이 홍보기획팀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함에 있어 필요한 홍보를 제안하면 더 나은 결과물로 표출하는 우리 홍보기획팀의 저력은 나날이 빛날 것입니다.

끝으로 기념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홍보기획팀, 너무 감사합니다.

### 그리고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병원의 가치를 잘 공유하고, 타 부서에 대한 깊은 공감을 통해 신뢰와 협력, 문제해결력을 상승시켜주는 해운대나눔과 행복병원 모든 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感謝 감사

나의 어느 부분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지인들의 노력의  
집합체다.

